

지역사회를 위한 ‘열린 공간’ 마련!

－ 「KAB 열린 북카페 개설」 및 「우수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

작성자 : 한국감정원 홍보실 방민주(053-663-8455)

1. 추진배경

2013년 8월, 한국감정원은 공공기관중 1호로 대구 혁신도시에 입주하였다. 이주 초기에는 교통, 음식, 편의시설 등 제대로 갖춰진 것이 전무했다. 혁신도시에 사는 입주민들이나, 직원들 모두 간단한 것조차 해결하기 힘든 혁신도시에서의 생활은 편치 않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은 주민들도 마찬가지였다. 간단하게 물건을 사고 싶어도 차로 이동해야 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한국감정원은 대구로 이주한 이후, 지역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어려운 이웃의 주택을 개·보수하는 「KAB 사랑나눔의 집」을 2015년 까지 총 117채 실시할 예정이며, 기업은행에 400억원을 예탁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출 이자 1.7% 감면, 설·추석 명절맞이 사랑의 쌀 나눔 등 이미 지역사회를 위해 가장 잘하는 공공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감정원 KAB 사랑나눔의 집>



<기업은행 400억원 예탁>

한국감정원이 지역사회를 위해 더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끊임없이 고민했다. 그 결과, 지리적인 장점을 충분히 살려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 시설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한국감정원은 혁신도시 내 정 중심부에 위치하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한국감정원의 사옥 1층에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또한 건물 앞 공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의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장터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2. 추진내용(또는 추진경과)

가. 무료 커피, 인터넷까지 가능한 한국감정원 열린 북카페!

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 사옥, 식당 등 사무 시설로서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인근 주민을 위한 도서관, 쉼터 등은 열악한 상황이었다. 한국감정원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의 검토를 시작했다.

우선 장소는 한국감정원 본사 사옥 1층 로비 옆, 고객들의 접근성이 높은 곳으로 선정하여 약 1억원의 예산을 들여 북카페 설치에 착수했다. 주민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느낌의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편히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폭신한 소파와, 공부를 할 수 있는 스터디 룸, 무료 인터넷을 위한 컴퓨터도 설치하였다.

북카페 안의 책은 엄선하여 선정하였다. 주민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장르인 인문서적, 수필, 자기개발서, 취업준비생을 위한 취업 전문서적, 잡지, 또한 아이들을 위한 유아동 만화, 아동 서적 등 기 소장도서와 신규로 1천백만원 가량의 책을 구입하는 등 총 800권 가량의 책을 구비하였다. 또한 무료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커피머신, 정수기와 각종 티백을 구비하는 등 딱딱했던 사무공간이 따뜻한 커피한잔 하면서 여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했다.

오픈 또한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인근 지역주민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구의원을 모시고 약 100여명의 손님들을 모시고 음악회도 진행하는 등 세심한 진행은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나. 사전 벤치마킹과 지역 구청의 협조하에 진행된 직거래 장터

대구로 이주를 해 온 직원들 심지어 대구에 연고를 둔 직원들도, 대구에서 나는 농산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 못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알리고, 또한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직거래 장터 개장을 준비하였다.

직거래 장터를 개장하기 위해 우선 시행하고 있는 기관의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대구 인근 김천에서 실시중인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한 결과, 직원들이 편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점심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장을 마련했다는 점과 택배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했다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판매자를 모집하는데에는 동구청의 협조하에 진행 할 수 있었다. 동구청의 협조하에 지역 농협과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대구장터와 함께 직거래 장터 설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동구청과 지역 판매자와 3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운영시간과 장소, 판매 상품을 협의해서 약 80㎡규모의 장터 운영계획을 마련하였고 지역 주민이 더욱 이용하기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갔다.

3. 실패 및 갈등 극복과정(타기관, 이해집단과의 협력 포함)

가. 고객의 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북카페의 놀라운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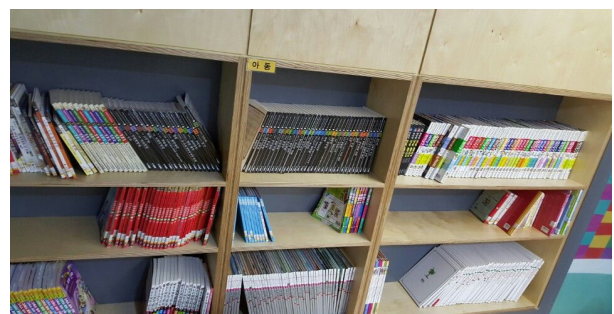
북카페 오픈 직후 때마침 학생들의 방학과 한여름 폭염과 맞물려 북카페는 방문객이 최고 100여명을 달성하는 등 끊이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북카페 오픈때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번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어 온도 조절이 쉽지 않았으며, 고객이 불편할 수 도 있다는 생각에 전담 관리자가 없는 상태로 운영하기로 했던 점에서도 문제점이 생겨났다.

건물 중앙 냉난방 시스템이라, 국지적인 장소의 온도 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어 우선 냉난방기를 신규로 구입하여 설치하였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실내 온도는 외부보다는 낮지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동하여 한여름 무더위를 피해 쉬러 온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다. 고객의 소리함도 설치하였다. 고객의 의견을 항상 듣고,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갔다. 희망도서를 신청받아 월1회 선정·구입하여 북카페를 고객이 원하는 책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감정원의 예산만으로 북카페 책을 구비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에 인근 기업은행, 한국감정원 여직원 봉사동아리, 직원들에게 총 430여권의 책을 기증받아 북카페 내부를 책으로 가득 채울 수 있었다.



< 고객의 소리함 >



< 기증된 도서로 가득 채워진 책장 >

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인근공공기관에 직접 방문·홍보를 통한 직거래 장터 개장

직거래 장터 개설에는 판매자의 조율과 홍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판매자의 이해관계가 다양하여 일치 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우리 농산물과 전통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직거래장터의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전통시장 상품권이 사용을 장려하여야 하는데 현금만을 우선으로 하는 상인들의 특성 때문에 설득이 어려웠다. 온누리 상품권으로 결제 가능하면 직원들의 구입이 더욱 편리해 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매출도 많아 질 것이라고 설득해 나갔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특성상 주말에는 본거지로 이동하는 직원이 많아 택배서비스가 필요했다. 1회 개장 결과 단단한 과일류는 직접 가져가는 고객보다 택배물량 매출이 더 높은 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인근에 거주하는 직원들은 대량 구매보다 날개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소포장 제품도 구비하였다.

직거래 장터는 많이 알려져야 하고, 많은 홍보를 필요로 한다. 개장 전에 인근 아파트 10여개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를 방문, 홍보용 전단지를 배포하여 각 아파트 라인마다 전단지를 부착하여 홍보를 실시하였다. 인근의 공공기관에는 사회공헌 담당자 등을 직접 찾아가 설명하면서 직거래 장터의 취지를 알렸다.

공공기관 임직원과 지역주민을 위한
“우수 상품 직거래 장터” 개장

선언이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 농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 가
 신서역신도시내 **“한국감정원 앞”** 에서 열립니다.
 많이 오셔서 우리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이용해 주세요!

★ 개장 일시 : 9월 11일 금요일 (오전 11시~ 오후 4시)
 ★ 장소 : 한국감정원 앞 광장 (동구 이노벨리로 291, 신서동)
 ★ 판매품목

| | |
|-------|---|
| · 과일류 | 복숭아, 사과, 포도, 토마토 |
| · 채소류 | 연근, 쪽파 |
| · 육류 | 쇠고기, 돼지고기 |
| · 특산물 | 국류, 재령 농산물(양파, 배란 등), 개령농산물(마늘, 마늘빵 등), 개령 대구시 우수 농산물(감귤) |

★ 장소, 과일류, 육산물 및 가공식품 **시장가 대비 20~3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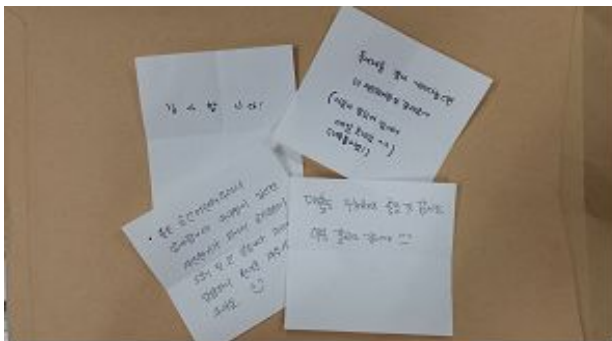
· 주관 : 동구청, 한국감정원 · 참여 단체 : 지역농협, 대구장터

< 북카페 오픈 포스터 >

4. 주요성과

가. 혁신도시 내 문화의 중심지, 한국감정원

북카페 내 설치했던 고객의 소리 함은 연일 고객의 칭찬으로 채워졌다. 현재까지도 북카페는 일 평균 3~40명의 고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던 삭막하기만 한 혁신도시에 누구나 편하게 와서 언제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겨, 고객의 소리함에는 북카페를 만들어주어 감사하다는 칭찬의 글을 자주 찾을 수 있었다.



< 고객 감사의 글 >

혁신도시 내에도 북카페 개소와 함께 ‘한국감정원은 혁신도시 내 문화의 중심지’라는 인식이 생겨났다. 동구청과 함께 인근 주민을 초청하여 윤영미 전 SBS 아나운서의 강연도 실시하였으며, 또한 가을~겨울에는 주민들을 위한 음악회 개최도 계획중이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직거래 장터

직거래 장터 개장 첫날 매출이 600만원을 달성하였다. 이에 따라 월 2회, 연 24회 개최되는 직거래 장터가 연간 1억4천만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전국 각지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의 농산물 구매는 대구

의 우수한 농산물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생산자/제조사 | 품목 | 내용 | 소재지 |
|--------------------|-----------------------|--|-----|
| 공산농협 | 과일류 | 포도, 토마토, 미나리 | 동구 |
| 동촌농협 | 과일류 | 복숭아, 사과, 체리, 살구, 자두 | 동구 |
| 반야월농협 | 채소류 | 연근, 깻잎 | 동구 |
| 대경친환경 작목반 | 친환경채소 | 근대, 쌈배추, 쪽갓, 적치커리, 적겨자, 열갈이, 비타 민, 깻잎, 청겨자, 상추 | 북구 |
| 팔공산미나리농성영농 조합 | 친환경채소, 건강식품, 주류 | 미나리(봄, 가을), 미나리 막걸리, 유기농 블루베리 즙, 유기농 블루베리잼, 사과즙, 마시는 미나리(D 마크), 무농약 미나리 분말, 미숫가루, 참기름, 들기름 | 동구 |
| 누에로 | 건강식품 | 오디즙, 누에가루, 뽕잎환 | 달성군 |
| ... 등 30여개 판매업체 참여 | | | |

< 직거래 장터 판매 내용 >

5. 성공요인 분석

지역사회를 위한 끊임없는 고민의 결과!

북카페와 직거래 장터에는 두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지역친화적’이라는 것과 ‘지역사회공헌에 일조’한다는 점이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지역주민들을 돕기 위한 고민을 하는 것, 그것이 북카페와 직거래 장터를 실시하게 된 첫 걸음이었다. 현재에도 무수한 개선점들이 존재하지만 ‘지역사회를 위한 것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아 나갈 것이다.

6. 향후계획

가. 혁신도시 문화의 중심지,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은 KAB 사랑나눔의 집, 북카페, 직거래 장터, 매월 첫째주 열리는 대경부동산 포럼 등으로 이미 혁신도시 내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는 북카페와 직거래 장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연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혁신도시 문화의 중심지로 우뚝 설 계획이다.

나. 지역사회공헌의 길잡이, 한국감정원

또한 지속적인 지역사회공헌 실천으로 부동산 전문 공기관의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고객에게 더욱 다가감으로써 기관의 신뢰도를 높이는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나침반이라는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함과 동시에, 지역사회기여에도 많은 노력을 쏟아 대구를 넘어 전국으로 퍼지는 지역사회공헌의 길잡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